

전통 장판지 제작과정 복원 성공

한국전통문화전당, 제조기술 복원·보존 위해 진행... 연구 기초 마련·제작방법 기록 등 성과 거둬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전통 장판지 제작과정 복원에 성공했다.

16일 전당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부채에 바르는 전통한지 선자지(扇子紙) 복원에 성공한 대 이어, 올해는 두 번째 과정으로 전통 장판지(狀版紙) 제작과정 복원을 진행한 것.

장판지는 유둔(油屯)이란 명칭으로 온돌과 함께 과거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자주 언급될 만큼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통한지 중 하나다.

한지 장판지는 1970년대 KS 표준규격으로 제정되며 한지벽지 및 창호지와 함께 산업적으로 가장 활성화된 한지 종류 중 하나였으나 바닥재(PVC바닥재, 합판바닥재 등)에 밀려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갔다.

이에 전당은 한지 장판지의 제조기술 복원·보존 등의 필요성을 느껴 전통한지 복원의 두 번째 과정으로 선정, 전주천년한지관의 전통한지 제조시설과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연구·분석 인프라를 활용한 복원 작업에 착수했다.

복원 작업은 과거의 장판지 자체를 복원하는 작업보다 후대에 전통 장판지를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 제작과정의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원을 위해 과거 문헌·문화재 등에서 발췌한 기록들을 토대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도움을 받아 4대궁 현장조사 및 한지 무형유산, 한지 관련 전문가, 장판지 제조 관련자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전통 장판지 제작과정 복원에 성공했다.

들의 자문을 구했다. 이후 전통 장판지에 대한 기록, 제조 기술, 현황 등에 대해 정립했으며, 장판지 유물을 습득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샘플 제조를 위해 장판지가 주로 생산되던 경남 의령과 전북 완주 지역의 제조 방법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 두 지역의 제작·가공 방법으로 기반으로 각각의 샘플을 제작해 복원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전당은 복원 과정에서 각각의 샘플을 통해 과거부터 사용되던 여러 종류의 장판지 마감재를 발견,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해 기름칠, 콩넛 등의 특성을 도출했다.

그 결과 △장판지 연구 기초 마련 △장판지 제작방법 기록 △과거 장판지 재현 △지류 공예품 등에 사용되는 마감 대체재 제안 등의 성과를 거뒀다.

김도영 원장은 "지난해 선자지 복원에 이어 장판지 복원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전통한지의 맥을 잇고 후세에 전달하기 위한 복원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당은 전통한지 장판지 복원 관련 모든 작업 내용 및 경남 의령과 전북 완주 지역의 장판지 제작 과정 등을 영상으로 담아 기록물로 보존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시상식 개최

전북교육청, 45개 우수 작품 선정... 학생저자 출간기념회도 열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참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시상식 및 학생저자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 문학상은 문학적 사유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문학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문학작품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시(동시 포함)는 초·중·고교 학생, 소설(동화 포함)은 초등 4~6학년·중·고등학생, 수필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총 45개 우수 작품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학생 저자 출간기념회'도 진행됐다. 올해는 39팀이 발간한 개인문집, 창작소설, 그림책,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선보였다.

출간기념회에는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학생 작가들을 축하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제1회 전북학생 문학상 시상식과 학생 저자 출간기념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독서·글쓰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주민참여형 기획전시 '작은 손 큰 상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하안양옥집서 내년 2월 9일까지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12월 17일부터 2025년 2월 9일까지 총 55일간 하안양옥집에서 전주 중앙초등학교와 연계한 주민참여형 기획전시 '작은 손 큰 상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중앙초등학교 전교생 81명(유치원생 포함)이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참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결실을 선보이는 자리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아이들은 지역 예술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전통문화의 상징인 '한지'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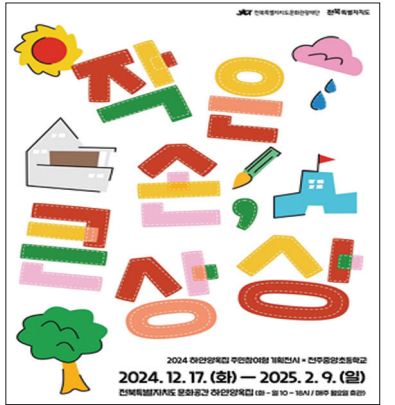
주제는 전주한옥마을의 풍경, 전주천의 생태환경, 한옥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일상 등 지역의 특색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한옥마을을 새롭게 생동감 있게 재해석했다.

개막 행사는 17일 오전 10시 중앙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길놀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창 공연, 축하, 단체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두 명의 어린이가 도슨트가 전시 라운딩을 맡아 작품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인 '모락 모락 겨울 꿈 공방'이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옥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나무 인형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 방법은 2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폼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아이들의 맑은 눈을 통해 한옥마을을 바라보고, 그들이 직접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 전시는 지역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이라며 "하안양옥집이 도민과 관광객, 지역 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전북예술회관 운영팀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 성과공유회·간담회 성료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이사장 유희태)은 최근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 성과공유회 및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9월부터 준비하여 창단한 완주어린이취타대는 대취타를 중심으로 하여 완주군 어린이들의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 확산과 전통예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9월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 창단식 이후 지역 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국립무형유산원 '2024무형유산축전',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목요 상



설 가무악 공연', 완주문화예술제 '예술로 충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전북 학부모 한마당', 완주교육지원청 '2024완주교육한마

당' 등 6회의 초청공연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음악 대취타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황금빛 완주어린이취타대의 힘찬 연주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김난희 교육장 등 내빈의 인사말과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완주군 어린이 취타대의 추진 경과보고, 학부모 감사장 수여 및 수료증 수여식을 통해 2024년 완주어린이취타대의 활동을 마무리하여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2025년 완주어린이취타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학부모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을 기약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립국악원, 국악연수생 수강 발표회 19일 진행

남원시립국악원은 오는 19일 오후 6시30분, 지리산 소극장에서 2024 국악연수생 수강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국악 연수 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국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완성된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악의 전통미와 현대적 재해석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가야금, 무용 연수생들의 다채로운 연주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주요 공연은 △판소리반의 민요 아리랑 연곡, 남도민요 신평노래 등 △가야금반의 민요 모음곡, 성금련류 짧은 산조 등 △무용반의 청풍명월, 창작무 등이 있다.

한편 시립국악연수원(063-635-6910)에서는 판소리반, 가야금반, 무용반을 수시로 모집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화가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